

국내 보건대학원 보건정책 전공자 석·박사 학위논문의 연구 경향 분석

고려대학교 의학도서관

하 신

Research Trends Analysis of Masters and Doctoral Theses on Health Policy from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in Korea

Korea University Medical Library, Seoul, Korea

Shin Ha

▶▷ ABSTRACT ◀◀

575 masters and doctoral theses on health policy from 2003 to 2010 that selected from a legal deposit National Library in Korea were analyzed with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health services research (HSR) which were developed by a former researcher. The keywords that were extracted from 575 masters and doctoral theses on health policy from 2003 to 2010 were compared with the White Paper and the beginning-of-the-year task report of the Ministry of Health & Welfare. 575 masters and doctoral theses on health policy hold 25% of masters and doctoral theses articles have increased with time. The study on 16 items of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health services research (HSR) was conducted without exception and some studies focused too much on 6 items (73%) of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HSR. Results of analysis of 2,823 keywords were extracted from the titles of 575 papers showed that 31 keywords hold 23% (641) and 6 words ('influencing', 'old', 'patient', 'satisfaction', 'related factors' and 'using medical services') were top ranked the most frequently used words. Analyzing 4 keywords extracted from the White Paper and 10 keywords extracted from the beginning-of-the-year task report with 2,823 keywords that 'old' and 'fund insurance' were used frequently. These findings suggest graduate students studying health policy and researchers should find and study subjects reflecting fields of the government's health policy and needs of Korean society.

Key Words: Health policy, Keywords, Relevance, Research trends, Theses

서 론

역사시대 이래로 인간은 무수한 저작 활동을 통해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해 지식을 축적, 이를 토대

로 발전을 거듭해 왔다. 개별 학문 분야는 연구 성과물의 발표, 공유, 축적을 통해서 그 깊이와 발전을 더해 왔으며 보건정책분야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 정책학의 뿌리 자체는 고대국가에서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나 현대적 의미의 정책학의 시작은 중

요성과 필요성에 반해 1959년, 1960년대로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문재우(2002)는 우리나라에서의 보건의로 분야에 있어 정책, 정책학의 개념이 도입된 시기를 1977년 건강보험의 도입과 함께 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니 우리나라 보건정책의 역사는 더욱 짧다고 하겠다.¹⁾

적합 정보의 수집 및 활용의 중요성은 연구 및 저작활동에 있어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핵심적인 부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특정 학문분야에서의 학문적 활동의 결과물인 연구 저작물의 분석을 통해서 해당 학문분야의 연구동향을 바라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국내 간호학, 교육학을 포함한 여러 학문분야의 연구자들은 해당 학문 분야의 성과를 공유하고 후임 연구자들에게 해당 학문분야 연구의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연구 분야 성과물들의 경향을 분석,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문경민(1993)은 문헌정보학의 연구동향을, 김성(1998)은 행정정보체계 관련 연구동향을 분석한 바 있고 장윤정(2004)은 무용학 연구의 경향을 연구하였으며 채규조(2004)는 음악교육학의 연구 경향을 분석하여 학위논문으로 발표하였다.²⁾ 권정은·최재호(2008)는 국내 학술지를 중심으로 초등수학교육 연구의 동향 분석을 학술지에 발표하였고 신현숙 등(2008)은 2000년 이후의 간호학 박사학위 논문의 경향을 파악하여 학술지에 발표하였으며 문혜옥(2009)은 보육관련 석박사 학위논문의 연구 경향을, 이월계(2010)는 관광학 연구 동향을 분석하는 등 이 외에도 많은 연구자들이 해당 학문 분야의 연구 경향을

분석 및 파악하려는 연구를 지속하여 왔다.³⁾ 그러나 국내 보건정책분야에서는 연구 성과물의 경향을 분석, 발표하는 사례가 드물고 특히 학위논문 분석에 있어서는 타 학문 분야들과는 달리 선행 학위논문들에 대한 연구, 탐구 경향에 대한 최근 분석이 전무한 실정이다. 김춘배 등(1999)은 예방의학회지를 중심으로 논문의 질적 분석 및 예방의학 연구동향을 연구한 바 있으며 김창엽(2001)은 학술지에 발표된 암 관련 초록을 분석하였다. 정민수 등(2008)은 북한예방의학회지를 통해 남북한 예방의학 학술활동의 차이를 분석하였고 최용준(2001)은 보건관리연구 경향을 4개 학회에서 발행되는 논문의 분류, 분석을 통해 분석한 바 있으나 이는 전문학회지에 국한되어 있었다. 국외에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보건관리연구 경향 분석 연구가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국내와는 다른 실정임을 알 수 있다(최용준, 2001). 인도에서도 인도의 보건정책 연구 발전을 위해서 질병부담(disease burden)과 공중보건우선순위(public health priorities)와 연관하여 2001년에서 2008년까지의 공중보건연구 경향을 연구한 바 있어 연구결과물의 경향성 분석이 특정 지역 및 국가에 국한되지 않음을 예상할 수 있다(Dandona et al., 2009).⁴⁾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보건정책분야에서는 학술지 및 전문지를 중심으로 경향성 연구가 수행되어 왔으나 보건대학원을 중심으로 하는 보건정책 전공자들의 석·박사 학위논문 분석을 통해 ‘보건정책학’의 학문적 성격과 경향성, 학문적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전공자, 연구자들의 깊이 있는 분석과 학문적 함의는 여타 학문분야와 달리 학문역사와 사회적 중요성에 비해 미흡하다고 하겠다.

1) 대한민국 보건정책의 학문적 기초를 세우고 성과를 축적하는 국내 보건대학원의 역사는 1959년 서울대학교에 보건대학원이 설치되면서 시작되었다.

2) 채규조(2004)는 필요한 자료를 신속 정확하게 찾는 데 느끼는 곤란함을 해소하기 위해 연구 분야의 논문을 장르별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해당 학문 분야에서 2차 자료로 활용 가능하다는 실용적인 면모가 보인다.

3) 문혜옥(2009)은 경향 분석을 통하여 해당 학문의 학문적 정체성을 정립하는 기초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4) 해당 연구는 정책관련 연구에서 결핍이 되는 부분을 보고자 하는 목적도 포함하고 있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보건대학원 보건정책 전공자의 석·박사 학위논문을 분석함으로써 특정 기간 동안 이루어진 보건정책분야 연구 경향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며 동시에 보건정책분야 연구자 및 학위 수여를 위해 수학하고 있는 전공자들에게 바람직한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대상(자료)은 고등교육법에 의거 설치된 국내 대학원 중 학교명에 보건대학원이 명기되어 있으며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구센터 통계 기준으로 학교 상태가 폐교가 아닌 ‘기존’ 또는 ‘학교명변경’으로 명기되어 있는 보건대학원들에서 수여된 2003년 2월부터 2010년 2월까지의 국회도서관 소장, 보건정책 전공 석·박사 학위 수여자들의 학위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⁵⁾

(1) 국내 보건대학원 현황 및 대상 대학원 선정:

국내 보건대학원은 최초 1959년에 서울대학교에 보건대학원이 설립된 이후로 해당 학문의 중요성, 발전가능성에 따라 설치 대학이 늘어가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구센터 통계 자료 상의 분류에 따르면 국내에는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정책 및 병원관리학과’ 포함 총 10,999개 학과가 대학원 과정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이 가운데 9,624개 학과는 석사과정만 운영하고 있고 3,514개 학과에서는 석·박사 과정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⁶⁾ 연구의 대상이 되는 학위논문을 발행하는

학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연구센터 통계 자료에서 학교명에 보건대학원이 명기되어 있는 15개 학교의 전공을 분석하여 보건정책 전공에 해당하는 ‘보건정책 및 관리학’, ‘보건관리학’, ‘보건정책 및 병원관리학’, ‘의료복지행정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9개 대학교를 선정하였다.⁷⁾

(2) 연구 대상 논문의 선정: 최종 선별된 9개 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발행된 학위논문을 국회도서관 한 곳을 통해서 수집하였다.⁸⁾ 학위논문 수집 기간을 2003년 이후로 설정한 이유는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탄생 이후 국내 보건정책의 변화가 새롭게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고 이는 참여 정부가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 기간의 보건복지 정책 전개를 평가할 때 ‘생산적 복지, 복지의 기본틀 형성’에 있다고 보고 있으나 참여 정부가 스스로의 보건복지 정책 전개를 ‘참여복지, 본격적 내실화’라고 구분 짓고 있어 우리나라 보건정책의 키워드 또한 2003년을 기점으로 변화가 있을 것이라 판단되었기 때문이었다.⁹⁾

학위논문을 국회도서관을 통해서 수집한 이유는 국회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이 법으로 규정된 국내에 두 곳 뿐인 납본도서관이며 자료의 수집과 보존 및 제공을 위해 전국의 각 대학원을 통해서 발행된 학위논문을 의무적으로 수집하고 있는 기관이

5) 2010학년 2월 졸업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009년 통계를 기준으로 삼았다.

6) 2011년 현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은 박사과정을 운영 중에 있으며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은 협동과정으로 박사과정을 운영 중에 있다.

7) 가톨릭대학교, 경북대학교, 고려대학교, 고신대학교, 서울대학교, 아주대학교, 연세대학교, 인제대학교, 전북대학교

8) 장윤정(2004)은 학위논문의 연구경향과 특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국회전자도서관을 활용하였으며 이월계(2010)는 학위논문이 국회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에 의무적으로 납본된다는 점에 착안, 국립중앙도서관을 활용하였다.

9) 2006년 1월 보건복지부 연두 업무보고에 따르면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 전개는 ‘기본적 복지수준의 확대, 복지 정책 구상’으로 평가하면서 국민의 정부와 구분을 두고 있다.

표 1. 연구 대상 학위논문

학교명(보건대학원)	전체 논문(편)	정책관련전공 학위논문(편)			비율(%)	대상기간
		계	석사	박사		
가톨릭대학교	339	0	0	0	0	2003~2010
고려대학교	260	126	126	0	48	2003~2010
고신대학교	228	90	90	0	39	2003~2010
서울대학교	652	253	242	11	39	2003~2010
아주대학교	54	3	3	0	6	2006~2010
연세대학교	757	103	103	0	14	2003~2010
계	2,290	575	564	11	25	

국회전자도서관

기 때문이다.¹⁰⁾ 또한 수집기관에서 국립중앙도서관을 제외하고 국회도서관 한 곳으로 한정, 지정한 이유는 국립중앙도서관의 경우 석·박사 학위논문의 원문 제공 및 검색이 국회도서관에 비해서 제한적이어서 학위논문의 열람 및 수집이 어렵고 국립중앙도서관은 대학도서관과의 협정에 의해 학위논문의 전문을 인터넷을 통해서 대학에 제공하지 않으나 국회도서관은 대학도서관과의 협정 사항에 의해 대학 내(內)에 위치한 특정 고정 IP 주소에 원문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연구 대상 학위논문의 리스트는 연구자 2인이 국회도서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자도서관 메뉴에 위치한 소장자료검색 서비스를 활용하여 입수하도록 하였다. 대학별 리스트 확보에 있어 통일성과 수집된 결과에서의 중복 및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검색을 위한 검색식과 키워드를 설계하여 적용하였다.

1차 검색을 통해 해당 기간 동안의 보건대학원 전체 학위논문 리스트를 확보하였고 2차 검색을 통해 보건정책 전공자의 논문 리스트를 확보하였다. 리스트의 중복과 검색결과에서의 신뢰도를 확인하

기 위해서 검색 결과를 눈으로 모두 확인하였다. 1, 2차 검색과 보정을 통해서 추출된 전체 논문은 2,947건이며 이중 보건정책 전공자의 학위논문은 579건으로 전체 논문 대비 20%를 차지하고 있었다. 아주대학교 보건대학원은 2004년 보건대학원이 설립되어 2006년부터 학위가 수여되어온 관계로 전체 논문의 수가 크지 않았다. 경북대학교 보건대학원,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전북대학교 보건대학원의 경우 각 학교 별로 전체 논문 수 대비 보건정책 전공자의 학위논문의 수가 크지 않아 리스트의 신뢰도에 문제가 제기되었다. 문제가 제기된 3개 보건대학원에서 해당 기간 동안 발행된 논문의 모수 및 보건정책 전공자의 학위논문 수의 확인을 위해 3개 대학교 도서관의 검색시스템을 활용하였으나 3개 대학교 도서관 검색시스템의 한계로 국회도서관에서의 검색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3개 보건대학원의 학위논문은 본 연구 결과의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상값(Outlier)로 판단,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하여 리스트를 확정하였다.

최종 선정된 연구 대상 학위논문은 표 1에서와 같이 6개 보건대학원에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발행된 전체 2,290개 학위논문 중 25%에 해당하는 575개 논문이다.

10) 국회도서관법과 도서관법은 '발행 또는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 출판 자료의 2부를 초판 및 개정판에 한해 국회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納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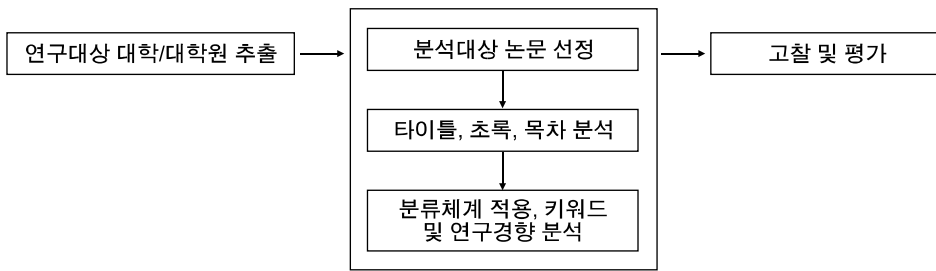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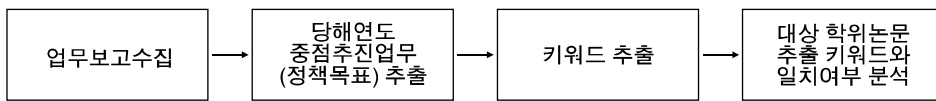


그림 2. 대통령연두업무보고 분석 방법.

2. 연구방법

그림 1의 연구방법과 같이 2003년에서 2010년 사이에 국회도서관에 납본된 보건정책 전공 석·박사 학위논문 575건을 대상으로 타이틀, 초록과 목차를 분석한다. 분석방법은 선행 연구자 최용준(2001)에 의해 개발된 보건관리연구(Health Services Research; 이하 HSR) 분류체계를 사용, 선정된 대상 논문에 분류체계를 적용하여 해당 기간 동안의 보건정책 연구자들의 연구 경향을 분석, 기술한다. 또한 연구 대상 논문의 타이틀(논제)을 통해서 해당 논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나타내거나, 해당 논문을 다른 논문들과 구별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논문의 선택 단어가 되는 핵심 키워드(단어)를 추출하여 보건복지정책의 지표가 될 수 있는 보건복지백서, 대통령업무보고와의 연관성을 분석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구분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학위논문을 선행연구자에 의해 개발된 보건관리연구(HSR) 분류체계를 적용, 연구 경향을 분석한다.

둘째, 학위논문의 타이틀(논제)에 사용된 키워드(단어)를 추출, 보건복지백서, 대통령업무보고와의 연관성을 그림 2의 방법과 같이 분석한다.

1) 보건관리연구(HSR) 분류체계 적용: 분류단위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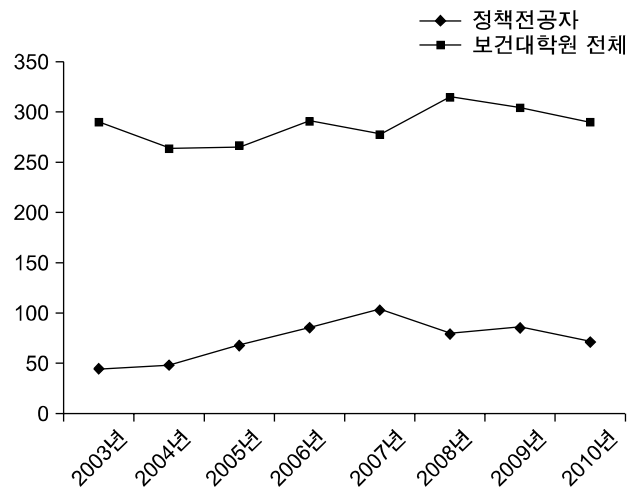


그림 3. 연도별 보건대학원 학위논문(2003년~2010년).

개개의 논문으로 2명의 연구자가 선행 연구자에 의해 개발된 그림 3의 16개 대분류 항목을 기준으로 모든 논문을 개별적으로 분류하였다. 실제 분류 시에는 정확한 분류를 위해서 논문의 타이틀(논제)만으로 분류가 어려운 경우 목차와 초록을 입수, 확인하여 분류하였으며 그마저도 어려운 경우 논문 전문을 읽어 분류하였고 각 분류항목에 해당되는 사항을 모두 검토하였다. 하나의 논문에 둘 또는 셋의 분류항목이 적용 될 수 있는 경우 논문의 내용을 가장 잘 포함한다고 판단되는 분류항목 하나만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이는 다수의 분류항목을

표 2. 분류 예시

주 제(Title)	: 도시보건소와 보건지소 내원자의 보건 의식 행태와 의료이용 특성
분 류	: 보건의로 행태
분류자	: 연구자 1, 연구자 2
검 토	: 완료
합 의	: 완료

적용함으로 인해 경향성 분석결과에서 나타날 수 있는 중복 적용에 따른 오류를 줄이기 위함이었다. 관찰자 변이(interpersonal variation)를 줄이기 위해 연구자 각각이 추출된 전체 논문을 1차와 2차에 걸쳐 분류하였고 연구자 각각이 분류 결과를 교환하여 검토하였다. 2명 연구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재평가를 실시하여 논의한 후 최종적으로 표 2와 같이 분류를 실시하였다.

2) 타이틀(논제) 및 키워드(단어) 분석: 키워드(단어) 추출 대상은 575건 논문의 타이틀(논제)이다. 타이틀(논제)의 표기 및 연도 표기는 국회도서관에 최종 납본되어 실제적으로 이용자에게 열람되고 있는 표기를 따랐으며 한글과 영어가 혼용된 논제의 경우 한글 표기를 기준으로 하였다. ‘은, 는, 이, 가, 을, 를, 들’과 같은 주격조사와 목적격조사는 절단, 삭제하였고 ‘의한, 대한, 연구, 로서, 및, 관한, 에서, 한, 인, 미치는, 따르는, :, =’ 등과 같은 키워드(Keyword)로서의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는 단어와 기호는 추출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정민수 등(2008)은 단어 정리 과정에서 잘못 잘려나가는 단어들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3번의 정리 과정을 거쳤으나 본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가 단어 추출 및 정리가 숙달되지 못한 관계로 키워드(단어) 추출 및 정리 과정을 5번에 걸쳐 반복하여 신뢰도를 높였다.

보건정책 전공 석·박사 학위논문이 정부의 보건정책의 흐름을 반영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보건정책의 중심에 있는 보건복지부의 연도별

정책 키워드를 보건복지부 백서와 대통령연두업무 보고의 분석을 통해서 추출하였고 대통령연두업무 보고의 경우 연도별 키워드 추출이 아닌 정부별 키워드를 추출하였다. 보건복지부 백서와 대통령연두업무보고는 2002년에서 2009년까지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2002년부터 2009년까지를 대상으로 한 이유는 석·박사 학위논문 연구자의 학위수여를 위한 수학 기간을 고려하였기 때문이었다. 2002년부터 연구를 진행한 연구자가 2003년부터 학위를 수여하였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고 2009년까지 연구하였던 연구자가 2010년 학위를 수여하였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으며 연구자에게 영향을 미쳤을 보건복지정책 이슈는 연구자의 연구기간과 일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었다. 보건복지부 백서와 대통령연두업무보고를 통해서 추출된 키워드(단어)는 575건 대상 논문에서 추출된 키워드(단어)를 대상으로 그림 2의 분석 방법을 활용, 경향성 분석을 위해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1. 보건관리연구(HSR) 분류체계 적용 결과

6개 보건대학원에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발행된 2,290건의 석·박사 학위논문 중 보건정책 전공자의 논문은 575건으로 전체 학위논문 대비 25%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연도별 발행 학위논문 수의 급격한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보건대학원 전체 학위논문 대비 보건정책 전공자 학위논문의 비율은 2005년을 기점으로 24% 이상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었고 2005년 이후 연도별 학위논문의 일시적인 양적 증가를 관찰할 수 있었다(그림 3).

그러나 보건정책 전공자의 학위논문의 수는 매년 점진적인 증가를 보이다 2007년을 정점으로 다소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보건대학원 전체 학위논문 대비 보건정책 전공자 학위논문의 비율은

25% 내외로 안정적인 발행 상태를 보이고 있었다 (그림 4). 2008년부터 보건정책 전공자 학위논문의 수가 25% 내외의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음은 2005년, 2006년 미 졸업자가 2007년 졸업을 하면서 학위논문의 수가 증가한 것으로 생각된다. 2006년 아주대학교에서 보건대학원을 설립하였으나 2009년, 2010년 학위논문 발행수를 통해서는 보건정책 전공자 인원 증가로 인한 보건정책 전공자 학위논문 발행 수의 증가를 뚜렷하게 관찰할 수 없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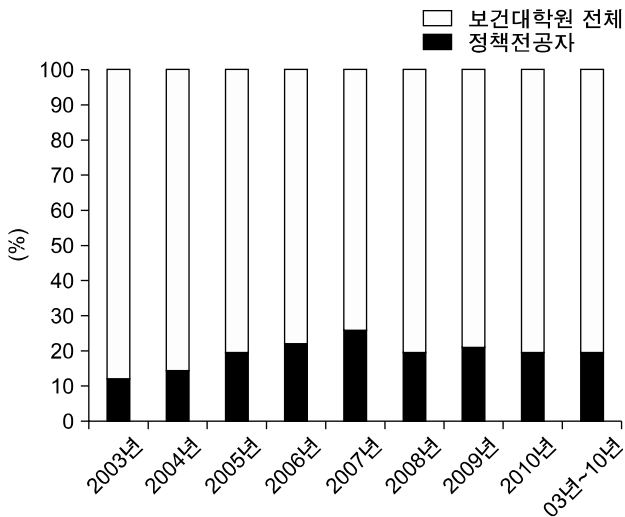


그림 4. 보건정책 전공자 학위논문 비율(2003년~2010년).

다. 전체 학위논문 대비 보건정책 전공자의 논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개별 학위논문 건수 변화와 마찬가지로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6개 보건대학원에서 우리나라 보건정책의 근간이 될 수 있는 보건정책 전문가를 안정적으로 배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연도별 논문 수 변화를 통한 공통 패턴은 관찰되지 않았다. 이는 개별 연구자의 스케줄 변화, 연구와 관련된 돌발변수의 발생, 졸업연기와 같은 요인으로 인한 논문수의 변화로 예상된다.

선행 연구자 최용준(2001)에 의해 개발된 보건관리연구 분류표의 16개 대분류와 연구대상 논문 575건을 일대일 대응한 결과 16개 대분류 항목 모두에 연구자들의 성과물인 학위논문이 발행되었음을 볼 때 16개 분류항목 전 영역에 걸쳐 연구가 수행되어 특정 항목에 대한 연구의 결핍은 없었다 할 수 있을 것이나 그림 5, 6과 그림 7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보건의료 행태’, ‘건강 및 보건의료 수준’, ‘보건의료 재정’, ‘보건의료 인력’, ‘보건의료의 질’과 ‘보건의료 필요와 이용’, 총 6개 대분류 항목이 전체 학위논문 중 419건, 73%를 차지하는 집중도를 나타냄은 결과적으로 10개 분류항목에서의 연구는 부진했음을 의미하였다. 16개 분류항목별 학위논문의 수는 연도별로 분석한 결과, 분류항목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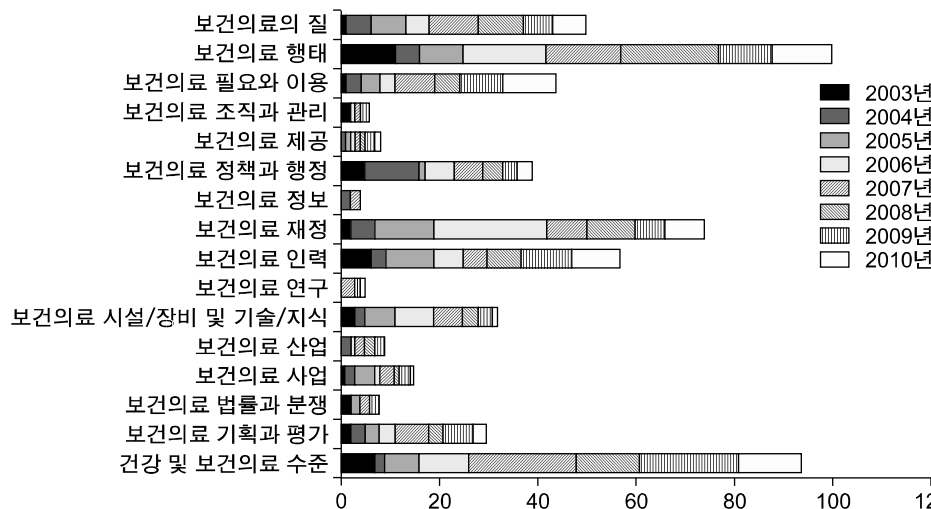


그림 5. 분류체계 적용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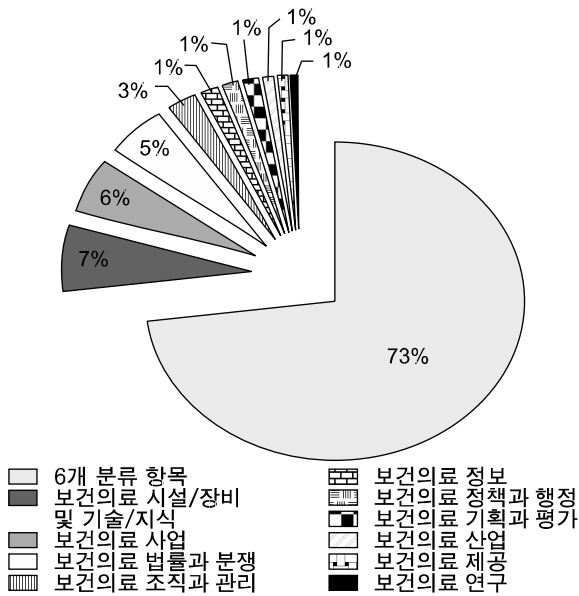


그림 6. 분류항목별 점유율(%)

학위논문 수의 합계 차이는 있으나 6개 분류항목에서 연도별 학위논문 발행의 지속적 증가라는 공통 패턴을 관찰하였다. 반면 10개 분류항목에서는 일정한 패턴을 발견할 수 없었다. 분류항목 적용에 대한 학교별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논문 발표수가 많은 고려대학교와 고신대학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의 보건대학원에서 16개 분류항목 전반에 걸쳐 연구가 이루어 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외적으로 아주대학교 보건대학원은 논문의 수가 작아 경향성을 분석할 수가 없었고 가톨릭대학교 보건대학원은 보건정책 전공 졸업생을 배출하지 않은 관계로 분석 할 수 없었다.

2. 타이틀(논제) 및 키워드(단어) 분석 결과

연구 대상 논문 575건의 타이틀(논제)을 통해 총 2,823개 키워드(단어)를 추출하였다. 키워드(단어)는 31개 키워드(단어)에 전체 23%의 사용 빈도를 보였으며 ‘영향요인’, ‘노인’, ‘환자’, ‘영향’, ‘만족도’, ‘관련요인’과 ‘의료이용’이 31개 키워드(단어) 중 가장 높은 사용 빈도 우위를 보였다. 사용된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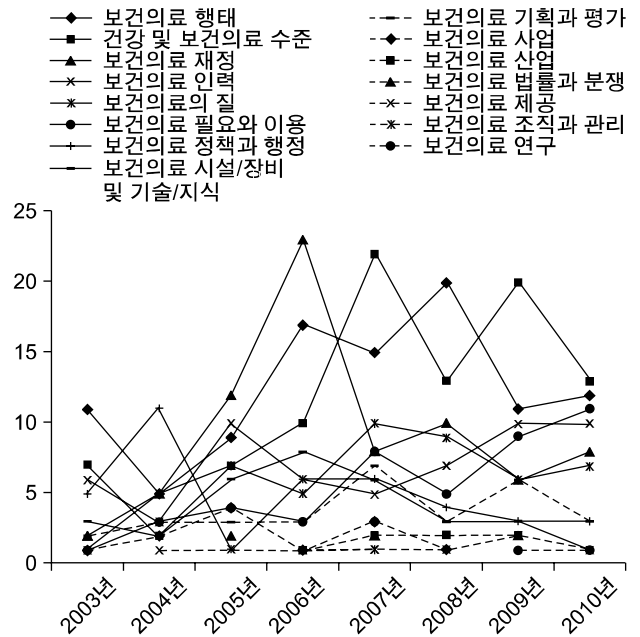


그림 7. 분류항목별 학위논문 발행수_연도별.

체 키워드(단어) 중 ‘영향요인’이 최상위 사용 빈도를 보이는 것을 볼 때 해당 기간 동안 석·박사 학위 수여자들이 보건의료 서비스, 인력, 행태, 정책 또는 현상에서 나타나는 인과관계를 규명하려는 연구 경향성을 가졌다고 생각된다. 2004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는 ‘노인’ 키워드(단어)의 사용 빈도수는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진입함으로 인해 보건정책 및 일반 사회적 관점에서 관심이 증폭되는 것과 상관이 있다고 판단되며 ‘환자’ 키워드(단어)의 다빈도 관찰은 보건정책 연구자의 연구 근간이 되는 주변 환경에 환자와 관련된 문제가 산재하여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키워드(단어) 사용 빈도의 연도별 변화를 분석하였으나 31개 전 키워드(단어)에 걸쳐 적용 가능한 공통 패턴을 발견할 수 없었다. 다만 최상위 사용 빈도를 보인 5개 키워드(단어)는 키워드(단어)별 합계의 차이는 있으나 사용 빈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이 관찰되었고 하위 사용 빈도를 보인 26개 키워드(단어)에서는 양적 증감 패턴이 관찰되지 않았다(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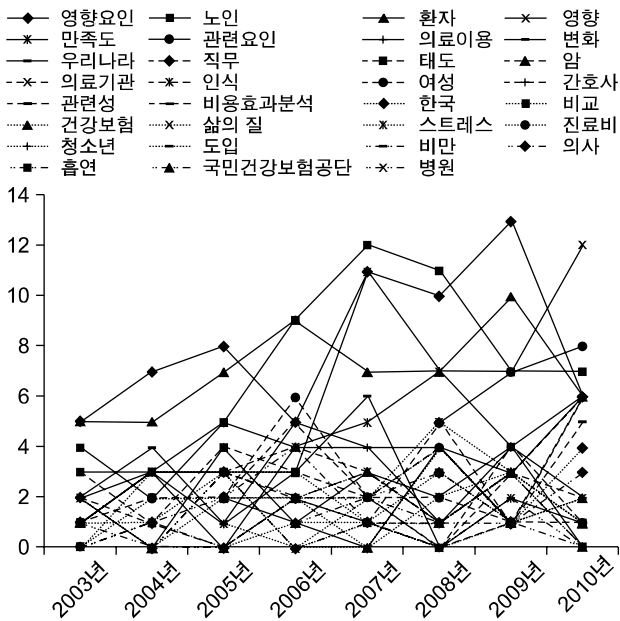


그림 8. 키워드(단어)별 사용 빈도_연도별.

8). 6개 분류항목별 학위논문의 연도별 증가가 상위 5개 키워드(단어)의 사용 빈도 증가에 기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판단되었으나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서 보건정책 또는 관련 이슈가 학위논문 타이틀(논제)에 반영되어 그에 따른 키워드(단어)의 사용 증가가 이루어졌다는 인과관계를 추론해 낼 수 없었다. 다만 타이틀(논제) 증가에 따른 키워드(단어) 사용 증가만을 확인하였다.

연구 대상 논문 575건의 타이틀(논제)에 정부의 보건정책의 흐름이 반영되는지 여부를 분석하기 위해서 먼저 보건복지부 백서의 분석을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28개 키워드(단어)를 추출하였다. 키워드(단어) 추출에 앞서 우리나라 대통령 재임기간 별 정부 성향에 따른 복지정책의 급격한 변동, 변화 양상을 관찰하기 위해 2003년에서 2010년까지의 보건정책 수장인 대통령과 임기 동안의 보건복지부 장관명과 재임 기간을 추가로 조사하였다.¹¹⁾

15대 김대중 대통령의 임기 기간 동안 7명의 장

11) 장관 평균 재임기간 확인을 위해서 김대중 대통령 재임 전체 기간 동안의 장관명과 임기를 조사하였다.

관이 선임되었으며 평균 8개월간 보건복지부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고 16대 노무현 대통령 임기 기간 동안에는 4명의 장관이 선임되었으며 평균 15개월 동안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다. 김대중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김모임, 차홍봉을 제외하고는 4명의 장관이 길게는 9개월 짧게는 5개월의 업무기간을 가진 것으로 보아 해당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보건정책 시행의 연속성에 내부적 혼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이 되었으며, 반면 16대 노무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김화중, 김근태, 유시민이 16개월 이상의 장관 업무기간을 가진 것을 볼 때 보건정책은 일관성 있게 수행되었으리라 예상되어 해당 기간 동안 보건정책 기조는 일관성 있게 유지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학위논문 연구자의 연구배경 및 연구에 일관성 있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생각 되었다. 현재 17대 대통령인 이명박 대통령 재임 기간 중 김성이, 전재희에 이어 김수희 현 장관이 2011년 6월 현재 보건복지부 수장을 맡고 있다. 김성이 전 장관의 짧은 임기에 반해 전재희 전 장관이 25개월의 기간을 임기를 가진 것으로 보아 정치적 변화 및 보건정책적 사회 이슈의 급부상이 정책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면 보건정책은 일관성 있게 수행되었을 것이라 판단되어 노무현 대통령 재임 기간과 마찬가지로 학위논문 연구자의 연구배경 및 연구에 일관성 있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생각 되었다.

2003년에서 2009년까지의 보건복지부 백서를 통해 매년도 중점진업무를 추출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표 3과 같이 연도별 키워드(단어)를 추출, 총 24개 보건정책 키워드(단어)를 추출하였다.¹²⁾ 추출된 키워드(단어)의 빈도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 ‘국민건강보장’, ‘국민안전보장’, ‘저출산’ 4개 단어에 높은 사용 빈도를 보였으며 추출된 4개의 키워

12) 2010년도 보건복지부 백서는 2011년 5월 13일 미출간 되어 미확인.

표 3. 보건복지부 중점추진업무 추출 키워드(단어)_연도별

년도	추출 키워드(단어)	비고
2002년	복지제도, 의약분업, 국민건강증진, 보건산업진흥	국민의정부
2003년	생활보장, 탈빈곤, 저출산, 고령화, 농어촌, 의료통합, 선진화 보건산업, 경쟁력, 국민건강증진, 질병예방, 건강보험보장성 국민연금신뢰	참여정부
2004년	생활보장, 탈빈곤, 저출산, 고령화, 국민건강보장	
2005년	생활보장, 탈빈곤, 저출산, 고령화, 국민건강보장	
2006년	소득양극화, 사회안전망, 저출산, 고령화, 국민건강보장 국민안전보장	
2007년	소득양극화, 사회안전망, 국민건강보장, 국민안전보장 인적자본투자	
2008년	사회안전망, 저출산, 고령화, 취약계층보호 국민건강보장, 국민안전보장, 보건의료제도, 선진화 보건산업육성, 수요자중심, 보건복지시스템개선	실용정부
2009년	사회안전망, 저출산, 고령화, 취약계층보호 국민건강보장, 국민안정보장, 보건의료제도, 선진화 보건산업육성, 수요자중심, 보건복지시스템개선	
2010년	백서 미발간으로 미 확인	

자료: 보건복지부 백서

드(단어)와 575개 논제를 통해서 추출된 2,823개 키워드(단어)와의 일치도 및 일치된 단어의 빈도수를 조사하였으나 연도별로 유의미한 단어 일치도 및 빈도수가 관찰되지는 않았다. 다만 ‘고령화’과 관계가 깊은 ‘노인’을 키워드(단어)로 대체한 결과 키워드(단어) 일치 및 사용 빈도 57건을 보였다. 2004년 이후 빈도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음은 정부의 ‘고령화’에 대한 관심의 지속과 연구자의 ‘고령화’와 관련된 보건정책적 관심의 지속은 일치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었다. ‘국민건강보장’과 정확한 일치를 보이는 키워드(단어)는 없었으나 이와 연관이 있는 키워드(단어),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일치 및 사용빈도 5건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국민안전보장’과 ‘저출산’과 정확한 일치를 보이는 키워드(단어)는 확인되지 않아 키워드(단어) 일치 및 빈도에 따른 경향성을 분석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백서와는 별도로 대통령연두업무보

고의 분석을 통해 키워드(단어) 81개를 추출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의 실용정부의 경우 학위논문 수여를 위한 연구자의 수확기간이 일반적으로 3년 내 외인 관계로 보건정책 및 관련 이슈가 타이틀(논제)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제외하였다. 1차 추출된 81개의 키워드(단어) 중 사용 빈도가 높고 연구자들의 관심도가 높았을 것이라 예상되는 키워드(단어)를 7개, ‘고령화’, ‘보건의료산업’, ‘건강보험’, ‘의약분업’, ‘저출산’, ‘장애인’,과 ‘보험재정’으로 압축하였으며 세부시행 과제에서 ‘노인요양보험’, ‘오송생명과학단지’와 ‘간병서비스’를 추가하여 총 10개 키워드(단어)를 본 논문의 연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 ‘고령화’는 고령화와 관계가 깊은 ‘노인’이 보건복지부 백서 분석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키워드(단어) 일치 및 사용 빈도 57건을 보였다. ‘보건의료산업’은 ‘의료관광산업’과 1건의 일치 및 사용 빈도가 관찰되었고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으로 일치되는 단어를 제외한 18건의 일치 및 사용 빈도 관찰되었다. ‘의약분업’은 2건, ‘저출산’은 0건, ‘장애인’은 4건, ‘보험재정’은 0건의 일치 및 사용 빈도를 보였으나 ‘보험재정’과 관련된 키워드(단어)를 확장, 적용한 경우 101건의 일치 및 사용 빈도를 보였다. ‘노인요양보험’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대체 키워드(단어)로 10건이 일치 및 사용 빈도를 가졌고 ‘간병서비스’는 ‘간병인’, ‘도우미’와 ‘방문도우미’로 확장, 적용하여 6건의 일치 및 사용 빈도를 보였다. 대통령연두업무보고에서 추출한 총 10개 키워드(단어)와 학위논문에서 추출한 키워드(단어)의 일치도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볼 때 학위논문 연구자 대부분은 정부의 보건정책을 반영하는 연구를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험재정’과 관련된 연구는 ‘보험재정’과 관련하여 재정 확충, 급여 확대와 같은 이슈가 지속적으로 야기되어 왔기 때문에 연구의 연속성 여부를 떠나 10개의 키워드(단어)중 출현 빈도가 가장 높았던 것으로 평가되며 ‘노인’은 ‘보험재정’과 더불어 일치 및 사용 빈도가 가장 높은 키워드(단어)에 해당하였으나 학위논문의 타이틀(논제)를 분석한 결과 정부정책을 반영 또는 따라가고 있지 않았고 고령화와 관련된 이슈가 지속적으로 야기되어 왔기 때문에 출현 빈도가 높았다고 해석하였다.

고 찰

본 연구에서 수집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전체 보건대학원 학위논문 대비 25%를 차지하는 연구 대상 학위논문 575건에서 연도별 학위논문 발행 수의 증감에 있어 급격한 변화 또는 지속적인 증감이 관찰되지 않았으나 2005년을 기점으로 전체 학위논문 대비 평균 24% 이상의 점유율과 함께 일시적인 양적 증가가 관찰되었다. 그러나 일시적 양적 증가의 원인을 게재 증가, 전공자 증가와 같은 요인으

로 한정 지을 수 없었다. 학위논문은 학술지와 같이 발행빈도를 임의로 조정할 수 없고 게재 대상 또한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보건관리연구 분류표 상의 16개 대분류와 연구 대상 논문 575건을 일대일 대응한 결과 16개 분류항목 전 영역에 걸쳐 연구가 수행되었음이 관찰되어 특정 분류항목에 대한 연구의 결핍은 없었다 할 수 있을 것이나 ‘보건의료 행태’, ‘건강 및 보건의료 수준’, ‘보건의료 재정’, ‘보건의료 인력’, ‘보건의료의 질’, ‘보건의료 필요와 이용’, 총 6개 대분류 항목에 학위논문 419건, 전체 학위논문 대비 73%가 집중되는 편중성을 보이고 있었다. 최용준(2001)의 연구에서도 4개 학술지에서 16개 분류항목 전 영역에 걸쳐 연구가 진행되었음이 관찰되었고 ‘보건의료 사업’, ‘보건의료 조직 및 관리’, ‘보건의료 재정’, ‘보건의료 필요와 이용’과 ‘보건의료 행태’에 논문이 집중되어 보건정책 전공자 학위논문이 집중되는 분류항목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특정 분류항목에 연구가 편중되는 경향성이 동일하게 관찰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와 최용준(2001)의 선행 연구에서의 결과사이에는 집중되는 분류항목에서의 차이가 있으나 3개 분류항목, ‘보건의료 행태’, ‘보건의료 재정’, ‘보건의료 필요와 이용’ 항목에서 연구가 집중되는 공통점이 있다. 반면 최용준(2001)의 연구와 본 연구는 일부 분류항목을 제외한 다른 항목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보건의료 행태’ 항목은 본 연구에서는 17%로 가장 높은 비율에 해당한다. 이는 학위논문 연구자들이 ‘보건의료 행태’와 관련된 연구 소재와 접근하기 쉽고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 연구 수행 전에 연구 결과를 쉽게 예상할 수 있어 연구의 설계 및 수행이 다른 분류항목에 해당하는 연구 주제들과 달리 상대적으로 수월하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보건의료 재정’ 항목은 본 연구와 선행 연구자 최용준(2001)의 연구 결과 모두 13%로 상위의 점유를 나타내고 있었

다. 이는 ‘보건의료 재정’과 관련된 이슈가 해를 거듭해서 계속적으로 재기되어 왔고 우리나라 보험제도와 의료제도가 존속되는 한 계속적으로 연구가 수행 되어야만 하는 과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연구자들의 관심이 지속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연구 대상 논문 575건의 타이틀(논제)을 통해 추출된 키워드(단어) 2,823개의 분석 결과 사용 빈도가 높은 상위 31개 키워드(단어)는 전체 키워드(단어) 대비 23%의 점유율을 보였으며 31개 중에서도 ‘영향요인’, ‘노인’, ‘환자’, ‘영향’, ‘만족도’, ‘관련요인’과 ‘의료이용’이 가장 높은 사용 빈도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1순위 키워드(단어)로 ‘영향요인’이 관찰된 이유는 학위논문 연구자들이 보건의료 서비스, 인력, 행태, 정책 또는 현상에서 나타나는 인과관계를 규명하려는 연구 경향성을 가졌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노인’ 키워드(단어)에서의 다빈도 관찰은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진입함으로 인해 고령화 및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환자’ 키워드(단어)의 다빈도 관찰은 보건정책 연구자의 생활 근간이 되는 주변 환경에 환자와 관련된 문제가 산재하여 연구자가 관련 키워드(단어)와 연관된 주제에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으로 생각되었다.

보건복지부 백서와 대통령연두업무보고에서 추출한 키워드(단어)를 575개 타이틀(논제)를 통해서 추출된 키워드(단어)와 일치 및 사용 빈도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 ‘보험재정’에서 일치 및 다빈도를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고령화’와 ‘보험재정’ 부분에 해당하는 정부의 보건정책에 학위논문 연구자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본 논문에서 연구자는 보다 면밀한 확인을 위해 해당 키워드(단어)가 추출된 학위논문의 타이틀(논제)를 대통령업무보고의 ‘고령화’, ‘보험재정’과 관련된 세부 정책과제에 비교하였으

나 대다수의 학위논문이 정부정책과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본 연구를 설계함에 있어 키워드(단어) 일치도를 통해서 보건복지부 백서 및 대통령연두업무보고와 학위논문 타이틀(논제)들 사이에서의 연관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였으나 기대하는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원인 중 하나는 보건복지부 백서 및 대통령연두업무보고의 전문을 통해서 키워드를 추출하지 않았고 보건복지부 백서의 경우 추출 대상이 되는 중점추진 업무는 포괄적인 단어로 기술되어 있어 보다 면밀한 분석에 용이한 구체적인 단어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한계는 첫째, 전국 보건대학원 전체에서 발행된 학위논문 전체를 모수로 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둘째, 분류를 위해서 사용한 선행연구자 최용준(2001)의 분류체계가 보건관리연구(HSR)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보건정책에 분류체계를 적용함에 있어 반드시 적합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데 있다. 셋째, 분류체계 적용에 있어 연구자의 편견개입이나 분류의 일관성에 문제가 제기되는데 있다. 분류시 대상 논문에 적용 가능한 분류항목이 둘, 셋 이상인 경우가 많아 분류상의 어려움이 있었으며 이는 최용준(2001)이 고찰을 통해서 지적된 바 있다. 넷째, 연구대상 학위논문을 통한 키워드(단어) 추출 기준을 전적으로 연구자 개인의 판단에 맡겼다는 점에서 키워드(단어) 선정의 객관성에 한계를 가진다.

결 론

보건정책 전공자의 575건의 학위논문은 전체 보건대학원 학위논문 대비 25%를 차지하였고 학위논문의 비율은 2005년을 기점으로 전체 학위논문 대비 24% 이상의 점유율과 함께 일시적인 양적 증가를 하고 있었다. 보건관리연구(HSR) 분류항목과

논문 575건을 일대일 대응한 결과 16개 분류항목 전 영역에 걸쳐 연구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고 6개 대분류 항목에서 전체 논문 대비 73%를 차지하는 집중도가 관찰되었다. 연도별 논문수의 변화는 6개 분류항목에서 지속적 논문 발행의 공통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나 10개 분류항목에서는 일정한 패턴을 발견할 수 없었다. 논문 발표수가 많은 4개 대학에서 16개 분류항목 전반에 걸쳐 연구가 이루어 졌고 상위 6개 분류항목에 연구가 집중되었다.

연구 대상 논문 575건의 타이틀(논제)을 통해 추출된 키워드(단어) 2,823개 분석 결과 31개 키워드(단어)가 전체 대비 23%의 점유율을 가졌고 ‘영향요인’, ‘노인’, ‘환자’, ‘영향’, ‘만족도’, ‘관련요인’과 ‘의료이용’이 최다 빈도를 보였다. 31개 키워드(단어) 중 5개 키워드(단어)에서만 연도별로 사용 빈도의 지속적 증가 패턴이 관찰되었다. 보건복지부 백서에서 추출한 4개 키워드(단어), ‘고령화’, ‘국민건강보장’, ‘국민안전보장’, ‘저출산’와 2,823개 키워드(단어)와 일치 및 사용 빈도를 조사하였으나 유의미한 단어 일치 및 사용 빈도가 관찰되지 않았다. 대통령연두업무보고를 통해 추출한 10개의 키워드(단어), ‘고령화’, ‘보건의료산업’, ‘건강보험’, ‘의약분업’, ‘저출산’, ‘장애인’, ‘보험재정’, ‘노인요양보험’, ‘오송생명과학단지’와 ‘간병서비스’를 2,823개 키워드(단어)와 일치 및 사용 빈도를 조사한 결과 고령화와 관계가 깊은 ‘노인’과 ‘보험재정’에서 일치 및 다빈도 사용이 관찰되었으나 8개 키워드(단어)에서는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국내 보건정책 전공자의 학위논문은 보건관리연구(HSR) 분류항목 전 영역에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특정 분류항목에 편중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고령화’와 ‘보험재정’에서만 키워드(단어) 일치 및 사용 빈도가 관찰되었으나 이를 통해서 정부의 보건정책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역량 있는 학위논문 연구자들의 현실 참여적이고 책임 있는 논제 선택 및 연구가 필요하며 정부의 보건정책에 대해 보다 많은 연구가 필수적으로 수행 되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 권정은, 최재호. 「우리나라 초등수학교육 연구의 동향 분석 : 국내 학술지를 중심으로」, 「한국초등수학교육학회지」, 제12권 제2호, (2008): pp. 149-163.
- 김성. 「행정정보체계 관련 연구동향 분석」, 1998.
- 김창엽, 이영성, 강철환, 유근영, 강길원, 하범만, 강영호. 「1990년부터 1996년까지 국내 일부 의학연구 학술지에 발표된 암 관련 논문 초록의 분석」, 「예방의학회지」, 제34권 제3호, (2001): pp. 200-210.
- 김춘배, 이정애, 박종구, 손석준. 「예방의학회지를 중심으로 한 예방의학 연구의 동향과 연관된 논문의 질적 메타분석」, 「예방의학회지」, 제32권 제2호, (1999): pp. 113-122.
- 문경민. 「문헌정보학 연구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1993.
- 문재우. 「보건정책론」, 계축문화사, 2002.
- 문옥륜. 「우리나라 의료정책 결정과정의 현황과 과제」, 「건강보장연구」, 제5권, (2001): pp. 35-70.
- 문혜옥. 「보육관련 석·박사 학위논문의 연구 경향 분석(2000~2008)」, 「한국보육학회지」, 제9권 제3호, (2009): pp. 1-24.
- 보건복지부. 「2002~9 보건복지백서」, 2002~9.
- 손학규. 「한국 보건정책의 과제와 진로」, 「보건행정학회지」, 제11권 제2호, (2001): pp. 1-5.
- 신현숙, 성경미, 정석희, 김대란. 「간호학 박사학위 논문의 최근 탐구 경향: 2000년 이후 논문 분석」, 「대한간호학회지」, 제38권 제1호, (2008): pp. 74-82.
- 안경주, 함은미, 박광희, 강지연, 박성희, 이희주, 류세양, 이명선, 김금순, 최명애, 이소우, 이은옥. 「서울대 간호학 박사학위논문 분석을 통한 간호학 연구의 경향」, 「간호학의 지평」, 제1권 제1호, (2005): pp. 85-102.
- 이월계. 「한국 관광학 연구의 동향-관광관련학과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2010.
- 장윤정. 「국내 무용학 연구의 경향분석」, 2004.
- 정민수, 정동준, 최만규. 「북한예방의학회지(1997~2006) 게재논문의 핵심어 네트워크 분석」, 「예방의학회지」, 제41권 제6호, (2008): pp. 365-372.
- 정영일 외. 「地域社會保健 및 一次保健醫療」, 地球文化社, 1992.
- 최용준. 「최근 우리나라 보건관리연구의 경향 분석」, 「보건행정학회지」, 제11권 제4호, (2001): pp. 129-152.

채규조. 「음악교육학 석사학위 논문 경향 분석 연구-국내 교육 대학원 초등음악교육전공을 중심으로」, 2004.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구센터. 「2003-2009 대학원 학과 별 석/박사과정 유무」.

Dandona L, Raban MZ, Guggilla RK, Bhatnagar A,

Dandona R. "Trends of public health research output from India during 2001-2008", BMC Med, Vol. 7, (2009): pp. 59-71.

국회도서관 홈페이지, <http://www.nanet.go.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